잔류농약시험시행 내년부터

수입한약재품질관리대책 세미나

보건복지부가 중금속 허용기준 강화 및 잔류농약 허용한도를 설정 고시함에 따라 의약품시험연구소는 농약사용 재배생약 98개 품목중 우선 13개 품목을 잔류농약 시험대상 품목으로 선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12월1일 서울 제기동 소재 경동프라자에서 개최한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대책 세미나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방안 및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금속시험에 이어 잔류농약시험이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됨에 따라 잔류농약시험이 실제 시험방법상의 문제와 난이도를 감안, 13개 품목을 우선 시험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량의 농약사용생약 수입량이 많은 생약등의 기준으로 선정된 13개 품목은 결명자, 목향, 복령, 우슬, 산약, 현삼, 구기자, 작약, 방풍, 건강, 황기, 지황, 적작약 등이다.

◇의약품수출입협회는 12월1일 수입한약재 품질관리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결명자 항돌연변이 효과

약학회 학술대회서 밝혀

예로부터 눈을 밝게하는 약용차로 널리 애용되어온 결명자에서 추출한 성분이 탁월한 항돌연변이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이 연구가 보다 진전될 경우 새로운 항암제조의 개발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약학회 제44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유전독성과 오혜영 연구관은 94년도 G7 선도기술개발과제로 부산수산대 식품영양학과 최재수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결명자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효과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혀 많은 관심을 모았다.

북미 원산으로 코오가에 딸린 1년생초인 결명자는 한방에서 간열, 안질, 변비등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여온 것은 물론 코피를 멈추게 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오 연구관은 CHL포유동물세포를 이용한 in vitro염색체 이상시험관 drr 마우스를 이용한 in vivo염색체 이상시험을 할돌연변이 물질 검색법으로 확립한 후 최교수팀이 단일화합물로 분리한 결명자 추출물인 rubrofusarin을 변이원물질들과 병용처리시켜 항돌연변이 효과를 검색해 본 결과 유의할만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즉 돌연변이 유발물질이자 항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bleomycin과 mitomycinc를 rubrofusarin과 병용투여한 결과 in vitro시험의 경우 bleomycin에 대해 2백50및 1백25㎏/㎖의 농도에서 45%이상의 염색체이상 억제율을 나타냈으며 in vivo 시험에서도 농도의존적으로 30%이상의 염색체 이상 억제효과를 보였다는 것.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장차 결명자 추출물로부터 새로운 암화학예방요법제조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오 연구관은 특히 현재 미국에서 임상3상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베타카로틴 보다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연구관은 그러나 이 물질이 실제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나올수 있기 위해서는 구조결정의 완벽한 규명 등 보다 진전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임협

영지버섯 가공공장 준공

협동생산 공동 출하

임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윤종)는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업협동조합 영지버섯가공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강화임협 영지버섯 가공 공장에서는 인삼 외에 또 하나의 강화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강화산 영지 버섯을 가공하여 영지과립차 및 영지엑기스를 생산하게 된다.

강화임협 가공공장 이 가동됨으로서 그동안 값싼 수입영지버섯의 범람으로 큰 피해를 보았던 영지생산농가들의 소득기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임협과 조합원 상호간의 협동생산에 의한 계통출하로 중간상인이 배제되어 조합원의 소득이 높아지고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에도 기여함은 물론 연간 40여t을 수매하여 재배농가 소득이 현재보다 호당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지버섯가공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영지엑기스 15t, 영지과립차 90t 등이며 당분간 과립차만 생산하고 연차적으로 드링크류와 엑기스제품으로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협 영지차의 특징은 쓴맛을 줄여 약초를 보존하면서도 고유의 쓴맛을 희석시켜 차와 음료로 복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온수나 냉수에 타서 먹을수 있는 제품이다.

도라지

칼리시비량 늘리면 수확량 증가

도라지를 재배할때 칼리비료를 10a(3백평)에 밑거름으로 10㎏, 웃거름으로 15㎏ 뿌려줄 경우 수확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농촌진흥원이 도라지의 칼리시비량 시험을 한 결과, 똑같이 밑거름을 10㎏ 뿌려줄 경우 웃거름을 15㎏ 주었을 때의 10a당 생산량(말린 뿌리무게)은 1백57㎏으로 5㎏의 1백24㎏과 10㎏의 1백40㎏보다 각각 13%와 27%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잎길이는 1백10㎝, 그루당 가지수는 11개, 뿌리길이는 24·8㎝로 나타나 웃거름을 5㎏이나 10㎏을 주는 것보다 생육이 훨씬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방

△황인구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김성배 경기 지부장 △이종렬 이사 △장지홍 이사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신현식 경기 양평군 사무소장 △이성덕 경기 구리시 사무소장 △김인욱 경기 연천군 공판장장 △이웅환 경기 안성군 사무소장 △윤성익 경기 부천시 공판장장 △윤창권 경기 의정부시 공판장장

인사

「免」

▲경남 밀양시 사무소장 이재홍(95년 10월 31일부) ▲경남 남해군 공판장장 김호홍(95년10월 31일부)사무소장 유임

산수유시세 「껑충」 일천궁 하락세

구기자 지난달에 이어 구기자 값이 근당 8천~8천2백원선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진도구기자는 산지에서 근당 도매시세가 8천~9천원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다.

올 구기자 수확량은 예년의 10분의1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

산수유 전반적으로 열매류의 약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수유 시세도 껑충 뛰었다. 산수유 주산지인 전남 구례군 산동 장에서 최근 9천5백원에 거래됐다는 산지인의 전언. 구례지역 산수유 올 한해 수확량은 10만근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천 궁 근당 1만원 선이던 토천궁 시세가 뚝 떨어져 현재 7천5백~8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일천궁은 3천6백원 선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

백 출 경상북도 영주 지역에서 소량 생산되고 있는 백출은 현재 근당 도매시세로 1만~1만1천원 선. 지난달 8천~9천원 선에 비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토백출은 물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며 당분간 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시세동향

의이인 근당 5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의이인 가격이 다소 내린 근당 4천5백원 선에 산지 거래되고 있다. 경기도 연천이 주산지.

당 귀 지난달 큰 폭으로 떨어진 당귀값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전 3천5백원선까지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떨어져 현재 거래되고 있는 당귀 근당 도매시세도 지난달과 비슷한 2천2백~2천5백원선(통)이다.

치 자 근당 7천5백원 선에 도매 거래되던 치자 값이 3천5백원 선으로 곤두박질. 주로 남해안 일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치자는 그동안 과잉재배돼 올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때문이라고.

강 활 본격적으로 햇것이 출하되기 시작한 요즘 약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활도 지난달 5천~5천5백원선에 비해 다소 떨어진 근당 4천~4천5백원선에 산지 거래되고 있다.

방 풍 원방풍 가격도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산 원방풍은 근당 9천~1만원 선에 전남 여수산은 근당 6천~6천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식방풍은 1천6백원(통) 1천7백~1천8백원(절)선이다.

오미자 자연산 오미자도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산지 시세는 근당 1만3천~1만3천5백원 선이다. 오미자는 전라북도 장수군이 주산지.

치자값 「곤두박질」 생산량 예년 2·5배